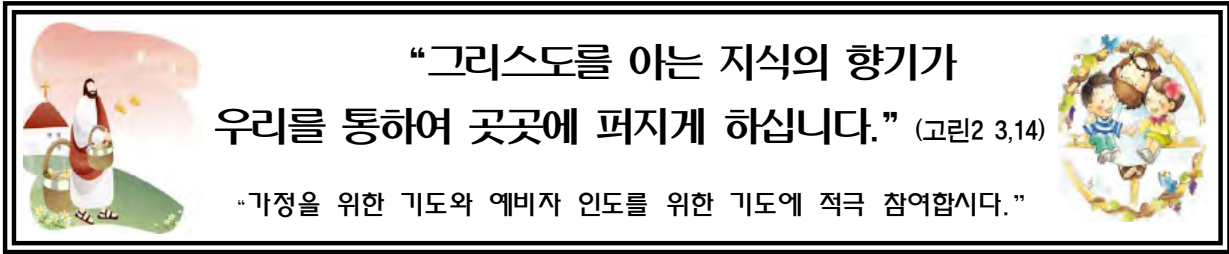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안나) 가정
- **마이클 모랜, 이영민(엘리사벳)**
대니엘 모랜, 브라이언 모랜 가정

오늘은 "연중 제20주일" 입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빵이 되어 주신 성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는 나의 밥이야!' 하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하고,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밥이 되어 주는 자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서로 밥이 되어 주는 사랑이 있는지 말합니다.

축 세례성사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였습니다.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구 사제 소임이동 - Fr. 주영길(토마스)

8월 17일(금) 청주교구에서 사제 소임이동을 발표했습니다. 제5대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임으로 청주 성모 병원 원목실장 **주영길(토마스)**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제4대 주임인 박진성(프란치스코) 신부는 **임정성당**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신부님과 떠나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 신부님 캔사스 도착 : 8월 28일(화) 공항 2시 20분(American Airlines)**
- **새 신부님 부임 미사 : 9월 2일(주일) 종심미사 때**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23일(주일)**
- **신 청 : 문석찬 요셉(행사본과장) 및 행사본과원**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5	213	178, 161	41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이우영(가브리엘)	정수한(베 드 로)
	이원준(요 한)	정예찬(미 카 엘)
다음주일	정준구(파비아노)	고영방(스테파노)
	정병훈(보니파시오)	고평원(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최은미(아 네 스)	김명은(안 젤 라)
다음주일	김명은(안 젤 라)	김태중(예레미야)
	김주연(세실리아)	김지민(글 라 라)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 마리아, 박혜정 가타리나, 유경애 아네스
다음주일	황의정 율리안나, 최선윤 마리아, 정연숙 막달레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8월 12일> - 다음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사참례 : 명
- 주일헌금 : \$
- 교 무 금 : \$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생명입니다. 사랑의 성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리며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솔피

대전교구,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소재.

솔피는 최초의 한국인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성인이 박해를 피해 용인으로 이사 갈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이라는 뜻의 '솔피'는 '내포의 사도'인 이존창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1814년 순교)가 면천 군수직을 버리고 신앙생활 전념하면서 교우촌이 되었다. 성 김대건 신부(1846년 순교)까지 4대의 순교자가 살았던 솔피는 1998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 146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생가를 복원하였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잠언 9,1-6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주 님 께서 얼 마 나 좋 으 신 지 너 희 는 보 고 맛 들 여 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
-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의 성도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쉬움이 없나니 가멸진 이 없이 되어 굶주리게 되었어도 주님을 찾는 이는 아쉬움 북 없도다. ◎
- 아이들이 다들와서 내 말 듣거라 주님의 경회를 가르쳐 주겠노라.
목숨이 그립고 복을 누리고자 장수가 소원인 사나이가 누구이뇨. ◎
- 모름지기 네 혀는 악을 삼가라 거짓된 말들을 네 입술은 삼가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거라. ◎

제 2 독서 : 에페 5,15-20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복 음 :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의 이삭

“나를 잡아먹어라!!”



어느 식인종 마을에 훌륭한 추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추장은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추장을 존경하였기에 추장의 말을 따라 사람고기를 먹지 않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식인종들은 옛날에 먹었던 사람고기 다시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가서 딱 한 번만 사람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추장은 한참 고심을 하였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에 머리에 노란 수건을 쓴 사람이 산에서 내려올 테니 그 사람을 잡아먹어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식인종들은 추장의 말대로 머리에 노란 수건을 쓰고 나타난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수건을 벗겼더니, 다름 아닌 자기들이 존경하던 추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고 추장의 죽음으로 인해 각골통한의 마음으로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식인종 추장은 자신의 몸을 마을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랑으로 식인습성을 고쳤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내어놓기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참으로 귀중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고, 오늘도 내가 참례한 미사를 통해 성체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나누어주십니다. 성체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신앙인은 바로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받아 모시는 성체가 메말라 가는 나에게, 세상의 삶 속에서 험겨워하는 나에게,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모시는 나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받아들인 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삶이란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잘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다 투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하느님을 위해 참고 사랑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내가 모신 성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나



학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 이라 하고,
 지식과 지성과 따뜻한 사랑까지를 겸비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 이라 하고,
 거짓 위선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나쁜 사람**’ 이라 하고,
 부모 형제뿐 아니라 남도 위할 줄 알고,
 이웃들과도 화목할 줄 아는 사람을
 ‘**착한 사람**’ 이라 하고
 드러내지 않고 양보할 줄 알며 기꺼이 봉사할 줄도 아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라 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의리있는 사람**’ 이라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이익만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 이라 하고,
 자기 일을 기술적으로 성실히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이라 하고,

남의 일에 함께 공감할 줄 알고,
 예의 바르며 외모도 좀 수려한 사람을
 ‘**멋진 사람**’ 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심한 사람**’, ‘**용기있는 사람**’ 등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중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교부들의 신앙

오리게네스

1) 오리게네스의 생애

동서방 거의 모든 교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유명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서기 185년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열심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철저한 신앙교육과 세속 교육을 다함께 받은 그는 암모니우스 사카스 선생 문하에서 배우며 철학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소양을 쌓았다. 202년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레오니데스는 순교로 생을 마쳤다. 그리하여 일곱 형제 가운데 장남이라 가계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는 오리게네스는 문학을 가르치는 문법 교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데메트리우스는 그에게 예비자들의 교육을 위탁하였다. 이리하여 오리게네스는 소장하던 세속 책을 모두 팔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으로서 수행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판테누스가 세우고 클레멘스가 대를 이어받았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는 이 젊은 스승 오리게네스의 명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어, 심지어 수업 과목을 배로 늘려야 할 정도였다. 오리게네스는 상급반만을 맡아 가르쳤다. 제자들로 하여금 우선 고전 공부 과정을 거치게 한 후, 비로소 성서와 신학의 체계적 연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로마와 요르단, 팔레스티나의 체사레아 등을 두루 다니며 강론도 하였다. 이런 사실은 소속 교구인 알렉산드리아의 데메트리우스 주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오리게네스가 평신도로 강론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자 체사레아의 주교는 지역 교회에서 오리게네스가 설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를 사제로 서품하였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을 때 데메트리우스는 그의 사제직이 무효하다고 선언하고 파문과 함께 유배를 명하였다. 이에 오리게네스는 체사레아로 피신하여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리하여 강론과 성서 주석의 두 가지 소임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그는 250년 테치우스 황제의 박해 시절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며 고문을 받았다. 그 후 유증으로 254년 69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으니, 이 위대한 인물이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순교의 꿈은 사실 이루어진 셈이었다.

-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청주교구)